

## 누리과정·초등 돌봄교실 '파행' 예고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지원〉

〈방과 후 학습지도〉

내년 교부금 급감 ... 광주·전남 4135억 부족 재정파탄 위기

전국 시·도교육감들 "국고지원 없을 땐 내년 예산편성 거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전국 교육감들이 국가 차원의 정책을 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은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사업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교육청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이들 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편성에서 이들 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내년 살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며 "올해 대비 재원이 1943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산한 내년 교육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대비 재원부족이 1943억원에 달한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430억원과 순세계잉여금(불용이월금) 600억원 등 총 1030억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세출은 인건비 인상(3.8%) 230억원, 누리과정 지원 증가분 220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증가분 60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증가분 60억원 등 91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가 정책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

육료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증가분 280억원이 고스란히 교육청에 떠넘겨져 지방교육재정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남도교육청의 내년 보통교부금은 올해보다 800억원 줄어드는데 반해 인건비와 누리과정 지원 등 세출은 1392억원 늘어 올해 대비 내년 교육재원은 2192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

육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부담(3살 자녀 가정 중 소득 하위 70%)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3~5살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 하지만 세수가 줄면서 오히려 교부금은 줄어들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해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 비율 확대에 두고 있다.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늘려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들어 반대하면서 교육재원 마련의 길이 막혀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2015학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데, 누리교육은 전적으로 교육청에 맡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교육청의 '빚'이라며 "교육부가 해법을 찾아야지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국인 관광객들 "광주 좋아요"

22일 오후 중국인 관광객 100여명이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를 찾아 미술, 공예품 판매

점 등을 둘러보고 있다. 무안공항을 통해 4박5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이들은 정음성

생가를 관람한 뒤 금남로와 충장로, 광주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눈부신 금빛 투혼 그녀는 너무 예뻐다

광주시시철도공사 김성연 유도 70kg급 금메달



예상대로 순천 출신 김성연(23·광주시철도공사)이 고향에 첫 금메달을 선물

했다. 〈관련기사 18·19면〉

김성연은 지난 21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도 여자 70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아리치즈루를 어깨 매치기 절반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김성연은 같은 날 경기에 나선 여자 63kg급 정다운(양주시청), 남자 81kg급 김재범(한국마사회)에 이어 경기장에 세 번째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했다.

한국은 대회 사흘째인 22일 사격 25m 여자권총에서 금메달을 뽐냈다. 김정미(우리은행), 이정은(KB국민은행), 박정혜(IBK기업은행)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이날 인천 육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25m 여자권총에서 1748점을 합작해 금메달을 땀다. 4년 전 광주에서 동메달에 그친 아쉬움을 떨쳐냈다.

한국은 세팍타크로 남자 더블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아시안게임 2회 연속 은메달이다.

김영만(28·정주시청), 정원덕(26), 인안수(26·이상 고양시청)로 구성된 남자 더블 대표팀은 이날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결승에서 미얀마에 세트 스코어 0-2로 졌다. 한국은 4년 만의 '리턴매치'에서 실욕을 노렸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도 두 대회 연속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북한은 3일 연속 역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역도 강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리정화(24)는 역도 여자 58kg급에서 인상 102kg·용상 134kg·합계 236kg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70kg급 결승에서 광주시공사 김성연이 일본 아리치즈루를 누르고 금메달을 확정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KTX 광주역 진입한다

광주시, 송정역에서 후진 '스위치백' 방식 추진

광주시가 내년 3월 호남고속철도(KTX·광주 송정~서울) 완전 개통에 따라 송정역이 종점인 KTX에 한해 광주역까지 연장 진입(후진)하는 이른바 '스위치백' 방식을 추진한다. 광주 시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동·북구 지역민의 교통 불편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는 11월께 광주권역 열차노선을 최종 결정할 국토부가 'KTX 1도시, 1거점 원칙'에 따라 '송정역 일원화'를 강조

하며, 스위치백 방식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확정 여부는 미지수다.

차령구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2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송정역이 종점인 KTX를 광주역으로 되돌리는 '스위치백' 방식을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역 활성화 및 KTX 광주역 진입 논의 TF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또한 광주역 주변

을 도심재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광주선(광주 송정~광주역·12km) 복선전철화 사업도 국토부에 추가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확정될 경우 '광주선'과 연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KTX 후진시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12km) 운행시간 17분, 역방향 차량의 엔진가동 준비시간이 20분이 들어가는 등 총 37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37분이면 시민들이 송정역에서 내려 차량 등을 이용해 광주역 인근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편의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한편 하루 평균 광주에 정차하는 KTX는 22대(양방향)이며, 송정역은 18대다. 올 연말 호남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되면 하루

### 광주시, KTX 일부 광주역 진입

- ① 모든 KTX는 송정역 진입을 원칙으로 하되
- ② 일부 광주역으로 유턴해 운행하는 방안으로 결정



48대의 KTX가 송정역에 정차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의 아시안게임 (23일·화)

여수 '흑비' 원인은 오리무중 ▶6면

허미정 5년만에 LPGA 우승 ▶20면

###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스쿼시 = 박은옥(광주시체육회)·여자 개인전 결승(12시·영우물 스퀘시장)
- ▲사격 = 이보나(벨라리아)·여자 트랩 본선 및 결선(9시30분·경기도종합사격장)
- ▲볼링 = 박종우·최복음(이상 광양시청)·남자 개인전(9시·안양호계체육관)
- ▲배드민턴 = 이용대(북식·삼성전기)·남자부 단체 결승(18시30분·계양체육관)
- ▲펜싱 = 박경두(해남군청)·남자 에페 단체전(9시·고양체육관)
- ▲유도 = 김성연(광주시철도공사), 김은경(동해시청)·여자 단체전(14시·도원체육관)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날

## 기억하세요!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스포츠 공연 미술관 박물관 고궁 무료·할인 관람"

무료·할인 혜택을 확인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